

# ‘성관계 표준 계약서’ ... 막가는 성

###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통해 급속 확산, 개정 성폭력법 처벌 피하기 악용될수도

#### 법조계 “강압 없었다면 수사 증거물로 사용될수도”

지난달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없어도,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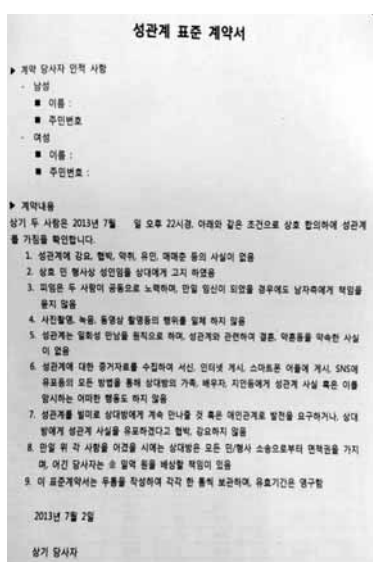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선 ‘부킹’이나 ‘원나잇(하룻밤 성관계를 갖는 일)’ 등 왜곡된 성문화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강화된 성폭력 대책을 피하기 위한 ‘폼수’로 비쳐 지는 방안마저 온라인과 SNS 등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자칫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없애기 위한 ‘성관계 표준 계약서’(사

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4일 페이스북에는 지난 2일 한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남·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성관계를 갖는 시간 그리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강요, 협박, 약취, 유인, 매매 등 동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 했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등 총 9개 조항으로 나뉘고 마지막 항에는 위 내용을 어길시 모든 민·형사 소송에 면책권을 갖고 1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 게시된 지 2일 만에 70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카카오톡, SNS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지도...”,

“저거 없으면 전자발찌 선물 받는 세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대다수는 “그릇된 성문화를 조정하는 것”, “원나잇 계약서가 많이 되느냐”와 같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성문화에 대한 젊은이의 자각과 자정노력이 보기 어렵고 계약서 조항들이 오히려 개정 성폭력법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광주지방 변호사 회 강성두 공보이사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조항은 아니다”며 “강압이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할 때 증거물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교장 ‘공짜연수’ 후유증

### 생활부장들 “우리 연수 인원 줄었다” 반발 광주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착수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교장 전원을 공짜로 해외연수 보낸다는 사실(광주일보 4일자 7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일선학교 학생생활부장들은 “교장단 무더기 공짜 연수 탓에 자신들의 연수 인원이 크게 줄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비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 연수는 학교폭력·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져 교사들이 업무를 기피하자 광주시교육청이 이들을 위로·격려하는 의미에

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생활부장이 연수 참가를 원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모두 받아들였고, 지난해의 경우 학교급별 60명씩 총 18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연수비 25%를 자부담 했다.

하지만 올해는 연수 인원이 초·중·고 학교급별 40명씩으로 제한됐다. 예산이 부족해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선학교 학생생활부장들은 “교장단 연수 때문에 부장연수 예산을 줄이고 참가인원도 축소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교장단 해외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에 교장단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례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 1원칩



# 여자화장실 음란행위 男...개정 성폭력법 적용 처벌

광산경찰, 공공장소 침입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개정된 성폭력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됐다.

광주광산경찰은 4일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빈칸에 불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로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지하철 송정공영역 내 여자화장실 빈 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

의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옆 칸 여성들을 훑쳐 본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당시 화장실에 있던 50대 여성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지하철 역 직원에게 신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씨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최근 신설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등 공공장소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처벌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 개정된 성폭력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 장마 대비 시설 점검

4일 오후 장마철을 맞아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 피해 복구팀 직원들이 동림동 우석지하차도에서 침수에 대비해 배수 펌프 시설을 시험가동하고 있다.

### 원세훈 前 국정원장 역대 금품 수뢰혐의 조사

이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삼척그린과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홀플러스의 인건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순천 50대 남성 ‘우울증 자살’

과다출혈 ... 병원서 숨져

우울증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손목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3일 오전 10시 40분께 순천시 조곡동 빈집(공가)에서 A(5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할머니 소유의 공가에서 왼

쪽 손목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인근에는 절단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톱이 놓여있었다. 목을 맨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에서 A씨 가족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 평소 뒷발 등을 가꾸기 위해 자주 가던 곳에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건설업자에게서 역대의 금품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역대의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황씨가 원 전 원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리스트를 확보했다. 황씨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삼척그린과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홀플러스의 인건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흑비 농작물 증급속 기준 이하

지난달 11일 여수 읍면에서 내린 검은 비(광주일보 6월13일 6면)를 맞은 농작물의 잔류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4일 검은 비에 노출된 옥수수, 고추, 참깨 등 3종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카드뮴 등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한 잔류도를 측정해 결과, 3종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범칙금 불만 골프연습장 침탈시 소동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택시 기사가 해당 경찰서 인근 골프연습장 침탈에 올라가 한바탕 소동.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기사 문모(33)씨는 4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경찰서 옆 S골프연습장 20m 높이 침탈 위에 올라가 “택시 기사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 경찰·소방관 50여명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비상 상황에 대비.

○...문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6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데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침탈 위에 올라간 경찰 설득으로 30분 만에 내려와 귀가.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장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합평다아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진행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합평군 학교면 국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합평다아너스티 컨트리클럽

##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 더 가온의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